

지역 소식통

정읍시, 찾아가는 결산 설명회...투명 재정 실현

정읍시는 지난 25일 북면과 연지동 이·통장 회의일에 맞춰 '시민에게 찾아가는 결산설명회'를 열었다.

찾아가는 결산설명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시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소통 창구다.

시 재정 운영과 예산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재정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결산설명회 대상은 지난해 추진했던 신대인읍, 고부면, 내장상동을 제외한 4개 면·동으로 11월은 북면과 연지동 12월은 추후 해당 면·동과 협의 후 이·통장 회의 일자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결산 감사 총괄 현황 △예산의 흐름 △세입세출 현황 △재무제표 △인근 시·군간 살림살이 비교 등 감청영 회계과장의 예산결산 설명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2년 나무가꾸기 행사 시행

부안군이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지난 25일 변산면 격포리 일원에서 나무가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안군청 도시공립과, 부안군 산림조합, 산림보호종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조림지에 산림용 고품질묘(780kg)주기용 가지치기, 덩굴제거, 잡목제거작업을 실시하고 훼손 고사된 나무가 없는 지 꼼꼼히 살폈다.

이번 나무가꾸기행사는 산림의 품격과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체험행사를 통해 숲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현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나무가꾸기행사를 가진 조림지는 부안군에서 경관조성, 생활권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양질의 볼거리 제공을 통한 지역명소화구축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백철쭉 및 자산홍 1만7,800주를 식재한 장소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정읍시, 내년부터 5년간 총 80억원 확보... 샘고을시장 등 주요 상점가

정읍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6차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도비 등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낙후되고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는 등 상권의 부흥을 유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샘고을시장과 중앙로·새안길·우암로 상점가 일대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정을

나누고 문화를 즐기는 상권'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상권 환경개선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상권의 특색에 맞는 특화상품과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한 테마존 운영과 상권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테마별 디자인 거리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샘고을시장과 중앙로, 새안길 우암로 상점가 상인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권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권 특색을 살린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공모사업 현장·발표 평가에는 이학수 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시는 이번 사업추진으로 시장 상권 브랜드화에 따른 상권 불거리, 즐길거리 등 인프라 확충 효과와 상인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상권 기반 구축, 다양한 연계 사업들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 고유성을 간직한 샘고을시장과 주변 상점가가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상권 유입 요소가 보충되고 관련 역사 인문 콘텐츠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노형수 고창부군수가 지난 24일 관내 주요 대형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모든 위험 상황 철저히 대비"

노형수 고창부군수, 대형 사업장 긴급안전점검·현장행정

노형수 고창부군수가 지난 24일 관내 주요 대형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노형수 부군수는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청사 신축공사 대형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중대재해 ZERO' 목표달성과 현업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전달했다.

또 현장 정비사항, 현장 내 안전장비 구비 및 착용 상태, 현장 근로자 안전교육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했다.

노형수 고창부군수는 "모든 위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사업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동절기 2가백신 찾아가는 방문접종 시행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없는 면 지역 주민 대상

부안군(권익현 군수)이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이 없는 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 19 동절기 2가백신 접종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겨울철 재유행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집중 접종기간 동안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의료진과 함께 방문접종팀을 구성해 지난 23일부터 어르신들이 다수 생활하는 요양 시설과 주간보호센터로 직접 찾아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의원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는 면 지역 주민에게도 예방접종 편



의제공을 위해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의료기관이 없는 주산, 동진, 보안,백

산, 상사 하사, 출포 위도는 면 보건지소에서 순회 접종을 실시하며, 신분증을 준비해 해당 면 보건지소로 방문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특히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대비해 부안소방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구급차와 구급대원 등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 재유행을 대비하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운영하게 됐다"며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접종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애향운동본부, '제13회 애향대상 증정식' 개최

고창군 애향운동본부(본부장 김사중)가 25일 고창동리국악당에서 '제13회 애향대상 증정식'을 개최했다.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애향현장 낭독, 장학금 수여가 이뤄졌고, 애향대상 및 애향특별상 증정식이 진행됐다.

해마다 애향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를 키우는 애향운동본부는 올해도 21명의 장학생과 국가공무원 5급 합격자 인 정해찬군을 선정해 장학금 전달과 함께 고창을 빛낼 인물로 성장해 주기를 당부했다.

올해의 애향대상은 뜨거운 애향심으로 고창 예술발전엔 많은 기여를 한 이현군 작가가 수상했으며, 애향 특별상으로는 김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고창군후원회장 김중현 경희중앙원의 원장 전진매씨 남편을 30년 동안 돌봐온 안혜숙씨가 각각 수상했다.

김사중 본부장은 "뜨거운 애향심으로 고창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며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해마다 장학금 수여로 지역 꿈나무를 키우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애향운동본부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애향운동본부는 1977년 출범하여 45년간 애향활동을 펼치는 지역 대표단체로서 군민화합교례회, 장학금 수여, 애향대상 선정 등 애향심을 고취하는 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국제화 추진 위원회' 본격 홍보 시작

정읍시는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제화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본격 홍보를 시작했다.

시는 이날 언론·학계·문화예술·법조계·체육·농민단체·여성단체·청년 등 각 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15명을 대상으로 국제화 추진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국제화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내년도 국제교류사업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국제교류 정상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 사업추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자매·우호 도시들과 실의 위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문화·관광·경제 등 더 폭넓은 분야



에 대해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국제화 추진위원회가 정읍시의 국제화·세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국외 자매·우호 도시와 문화·관광·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제화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은 매년 반기마다 정기 회의를 열고, 정읍시의 국제화 업무추진과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협의·조정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